

### 단오맞이 쌍합선 부채전

장흥 보림사주지 지목은 6월 13일 단오절을 기념, 단오의 대표적 풍습인 '단오 부채전'을 가졌다. 올해 8회째 진행된 부채전에는 '달마, 심우도, 새우' 등의 주제로 지목 스님 쌍죽선 부채 250여 점이 선보였다. 이번 부채 판매 수익금은 보림사 불교대학의 포교활동 기금으로 활용했다.

지목 스님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보급하고자 마련한 행사"라며 "불교의 경구(經句)나 달마대사를 그린 그림을 통해 불교의 진리를 일반인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단오날 먹물로 그린 달마대사 쌍죽선 부채를 흔들며, 더위를 이기는 것이야말로 명절을 뜻있게 보내는 선조들의 지혜를 살리는 뜻 깊은 행사"라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 부루나 합창단 공연 광주불교사암연합

"맑은 바람 스미는 초여름 연못에, 모든 시름 잊은 듯 초연하는 피는 모습~"

초여름 혼성 불교합창단이 시원한 감동을 전하는 정기발표회를 개최했다.

광주최초의 남성불교합창단인 부루나 합창단(단장 김형권)과 광주불교사암연합합창단(단장 서경희) LOTUS CHORUS는 6월 14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정기발표회를 개최했다.

'연꽃 피어오르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합창회는 박종찬씨의 지휘와 정현미씨의 반주에 맞춰 '반야심경', '가산 물소리', '진리의 빛' 등 15여 곡을 선보였다.

행사에는 혜월 스님(한마음선원 광주전남지원장),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범능 스님(화순 불지사 주지), 지용현(광주전남신도회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 선운골 사람들의 화합 한마당

##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제안 '선운골 공동체' 구성

천년고찰 선운사 일대 전북 고창군 삼인마을과 석상마을, 상가 번영회와 협의회,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사람들은 생활공동체 '선운골 공동체'를 구성했다.

공동체 구성을 기념하며 '선운골 공동체 화합한마당'이 6월 14일 선운사 생태공원 앞에서 선운골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뜻을 한데 모아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공동체 구성은 선운사를 중심으로 공동체 구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오고 있던 중 선운사 법만 스님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선운사 인근 200여 마을주민들과 농협, 파출소, 우체국 직원, 도솔암, 동운암, 석상암, 선운사 승가대학 학인 등 스님 50여 명이 동참한 이날 화합한마당에는 마을 주민들과 상가 주민들이 푸짐한 음식을 먹고, 정답을 나누며 편하게 진행했다.

또 승속이 함께 하는 공동체 정신 아래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스님들과 축구, 농구 자유투 던지기, 제기차기, 윷놀이, 고리 던지기 등의 놀이를 곁한 경기를 하며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법만 스님은 "선운사를 창건할 당



선운사 일대의 주민들과 스님들이 선운골 공동체를 구성해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시 소금 굽는 법을 주민들에게 전수해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한 김담선사의 창건정신을 되살려 선운사를 중심으로 수행과 포교, 문화와 복지의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인근 마을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선운사를 방문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고창을 여행하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친절을 베풀고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아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운사에서 공동체를 형성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지역 번영과 화해와 상생이 이뤄질 것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군 관계자들도 "선운사를 중

심으로 선운산 도립공원은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유적, 템플스테이 등을 중심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사계절 관광지로서 인기가 높은 만큼 전 국민의 관광지로 자리 매김하는데 '선운골 공동체'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군산교도소 15대 교정위원장에 자인스님 취임

## 교도소가 텅 비는 그날까지...

"지난 25년 동안 사회봉사활동과 군산교도소 교정교화사업을 통해 재소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순간의 실수를 벗어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에토를 정토로 바꾼다는 원력 하나로 25년간 군산교도소 교정교화활동에 매달렸던 군산 내원암 자인 스님이 6월 17일 군산교도소 교정협의회장에 취임했다.

"올해가 군산교도소가 탄생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각 종교별 교정위원들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한편 '육정골 봉사활동'을 통해 교정교화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자인 스님은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을 유보한 지장보살의 원력처럼 유익하고 알찬 교화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들이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사회에 복귀해 교도소가 텅 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지역에서는 '재소자들의 어머니'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자인 스님은 지난 25년동안 군산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교도소 내 80평의 법당을 건립하고 불자 재소자들과 자매결연 주선, 취업알선 등 재소자들의 교정교화 활동에 정성을 다해왔다. 그 공로로 1991년 법무부장관 표창과 1996년 교정대상 자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자인 스님의 임기는 2년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교도소 제15대 교정위원장 자인 스님

## 문수 스님 고향 봉동은 이제 의인의 고장

### 완주군 봉동읍 문수 스님 추모제

4대강 사업 종지와 부정부패 척결, 가난한 서민을 위한 세상을 외치며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 추모제가 6월 12일 문수 스님의 고향 전북 완주군 봉동읍 문수공원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완주 송광사 도영 스님, 금선암 덕산 스님, 대원사 적묵 스님 등 20여 스님들과 전주 바라밀 합창단, 익산 가릉빈가 합창단을 비롯한 지역의 불자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문수 스님의 큰 뜻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도영스님은 추모법어에서 "문수 스님의 육신은 갔지만 스님의 정신만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으로 남아있다"며 "우리지역에 의인이 나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스님의 큰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문수 스님의 고향 전북 완주에서 6월 12일 문수 스님의 추모제가 열렸다.

하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스님의 큰 뜻을 이어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길용 추모제전위원장 (전 완주신문 회장)은 추도사를 통해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

는 문수스님의 정신은 이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런 봉동의 정신이 되었다"며 "지역민들과 합심해 문수스님의 정신을 고추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초의선사 탄생 기념 문화제

초의 선사 탄생 224주년을 맞이해 초의선사탄생문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용운 스님)는 지난 12일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소재 초의선사 탄생지에서 '초의선사탄생 문화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초의선사 동상 헌다제, 학술세미나, 작은음악회 등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임지암 일원에서 어린이 사생대회, 한국야생꽃자시연시, 초의선사 서화탁본 체험, 국악 및 문화공연, 찻자리전 등이 진행됐다.

용운 스님은 "많은 다인들이 울린 정성스러운 차 한잔은 초의 스님과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며 "다인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 제3회 빛고을 연꽃문화제

동원 광주지구(지구 회장 도재, 광주 길상사 주지)는 6월 13일 무각사 앞마당에서 '제3회 빛고을연꽃문화제'를 개최해 미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5세부터 초등학생 180여 명이 두루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글짓기, 그림 등에서 자신의 숨겨온 솜씨를 뽐냈다. 작품활동의 시제는 '부처님마마, 부모님'이었다.

작품활동에서 조계종 포교원장상 대상에는 전대진(목포 북교초등 2년), 최우수상에는 박지민(효광초등 3년)과 한은상(계수초등 3년), 김경민(서초초등 5년), 김민영(유안초등 6년) 등이 수상했다. 이밖에 특별상, 우수상, 가작 등 16명의 어린이가 그림과 글짓기에서 각각 수상했다.

심사위원에는 원로시인 손광은 명

예교수(전남대)와 김수봉 작가, 최은정 작가, 장영일 화백(호남대 초빙교수), 김송자 선생(국전 초대작가)의 심사로 진행됐다.

그밖에 우리들의 연꽃문화제, 체험 및 놀이활동(인경체험, 페이스페인팅, 즉석사진 촬영, 등 만들기, 나무 악세사리 만들기, 부채 만들기, 물풍선 만들기, 연꽃사탕 만들기, 전통놀이체험), 문화공연(마술, 비보이, 오키리나, 대금등)이 진행됐다.

도재 스님은 인사말에서 "광주동연에서는 매년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창의적인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연꽃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고 미래이다. 부처님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